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대표 프레스 메이커 (주)SIMPAC

The First - 전 세계 프레스 시장을 선도합니다.

국내 1위의 프레스 전문기업 ㈜SIMPAC은 자동차 산업 등에 사용되는 프레스기를 생산하며 독보적 시장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으며 Global Supplier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The Best - 최고의 품질과 기술을 자랑합니다.

㈜SIMPAC은 1991년 설립한 기술연구소를 통해 신기술 확보 및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ISO9001, EM, CE, S마크 등 국내외 유수의 인증을 획득하는 등 국내 금속가공 기계산업을 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Well begun is half done
作始成半(작시성반)

우리 옛말인 ‘시작이 반이다’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Well begun is half done’, 그리고 사자성어인 作始成半까지. 만국공통으로 도전과 실행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들입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선 시도부터 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의 2014년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 지금 ‘시작’ 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누구나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던가,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다’와 같은 자신만의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은 생각만으로는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또 생각만 하는 사람은 현실을 타할 자격이 주어지지도 않고요, 모두가 아는 이야기이지만 성공이라는 열매는 매일, 매 순간, 마음을 다잡고 포기하지 않은 이에게만 주어지는 값진 결실입니다.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2014년 SIMPAC인 여러분들도 새로운 출발점에서 목표를 향해 정주행할 준비가 되셨다면, 우선 ‘시작’ 하시길 바랍니다.

SIMPAC 더하기 도전



04	SIMPAC's Message	SIMPAC 신년사
08	새해바라기	말따 SIMPAC인 이야기
14	도전의 기록	SIMPAC메탈 당진공장 창립 멤버 7인
20	도전하는 사람들	SIMPAC 해외영업팀
24	기획칼럼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28	차 한 잔 나누며 Talk Talk	SIMPAC 경영지원팀 · SIMPAC메탈로이 인사총무팀 · SIMPAC메탈 경영지원팀의 만남
32	With Us	2013 SIMPAC메탈 한마음 전진대회 현장
34	SIMPAC NEWS	SIMPAC 소식
36	Fun Fun	다른그림찾기
37	Letter from SIMPAC인	당신을 칭찬합니다

SIMPAC STORY 2014년 NEW YEAR | 통권 25호 | 발행인 최진식 | 발행일 2014년 1월 28일 | 발행처 SIMPAC홀딩스 02-3780-490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 삼팩빌딩 13층 | 기획 ㈜IR큐더스 02-6011-2000 | 편집 및 디자인 ㈜IR큐더스 02-6011-2000 | 인쇄 삼진프린테크

사보담당자
㈜SIMPAC홀딩스 이승훈 대리 02-3780-4906 gausy@simpac.co.kr
㈜SIMPAC이혜정 032-510-0020 hjlee@simpac.co.kr
㈜SIMPAC메탈 강승삼 041-360-0124 sskang@simpac.co.kr
㈜SIMPAC홀딩스 정제린 대리 032-590-2020 jljung@simpac.co.kr
㈜SIMPAC메탈로이 선광규 대리 054-271-8724 kgsun@simpac.co.kr



SIMPAC 가족 여러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오는 청마(靑馬), 다시 말해 푸른 말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말은 힘과 스피드를 상징하며, 또한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청마의 역동적인 기운을 두루 받아서 SIMPAC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SIMPAC그룹은 국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각의 사업영역에서 성장과 내실을 다지는 노력을 부단히 해왔습니다. 먼저, 기계사업 부문에서는 2,500톤 대형프레스 첫 납품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더불어 세계시장 개척의 속도를 한층 더 강화한 한 해였습니다. 한편, 합금철사업 부문에서는 조선, 건설, 철강산업으로 연결되는 가치사슬 산업의 불황 속에서도 수익성 중점의 경영으로 내실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작년에는 주물 및 산업기계 전문업체 봉신을 인수함으로써 SIMPAC그룹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는 해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SIMPAC 임직원 및 가족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2014년도 회사 경영에 관한 몇 가지 방향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경영 환경은 그 어느 해보다 녹록지

SIMPAC그룹 신년사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통 제조업의 위기가 이제 더 이상 경기순환 사이클에 따라 부침을 겪는 것이 아니라 상시성을 갖게 된 것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유럽과 일본 등 글로벌 선진사의 높은 기술 장벽과 중국, 인도 등 신흥 제조강국의 저가 제품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 때문입니다. 제조업의 위기는 글로벌 시장의 거대한 파도처럼 SIMPAC이란 배 앞에 끊임없이 놓여 있습니다.

지속되는 불확실성, 저성장,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생존을 위한 자원 높은 R&D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우리 기술경쟁력 수준으로는 더 이상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R&D는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이에 회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R&D를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입니다. 설계/생산 등 각 분야 엔지니어 양성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며,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 R&D 추진과제를 강력히 실행할 것입니다.

둘째, 영업, 구매, 물류, A/S, 재무 및 인사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합 작업을 통해 조직 효율성을 높일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외 기업환경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우리는 수시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한 기업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습니다. 끊임없는 혁신만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셋째, 합금철사업의 고도화, 전략화를 통해 생존능력을 배가시킬 것입니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철강산업의 위축과 국내외 동종업체들의 Capacity 경쟁은 합금철사업의 치열한 생존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항 및 당진공장의 제품 포트폴리오 재정비, 설비효율화, 조업기술 고도화 등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타개해나갈 수 없습니다. 금년도는 합금철 사업의 생존능력 업그레이드에 집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IMPAC그룹의 새로운 식구인 봉신과 더불어 종합 공작기계업체로서 SIMPAC의 위상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봉신은 기계주물 및 산업기계 분야의 히든챔피언 기업입니다. SIMPAC그룹의 가족이 되면서 기존의 우리 프레스 사업 및 ROLL사업과 더불어 봉신의 각 사업부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하며 SIMPAC그룹이 종합 공작기계업체로 글로벌 브랜드가 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SIMPAC 가족 여러분, 대내외 위기와 도전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 앞에 놓인 숙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와 도전은 이를 맞이하는 조직 및 구성원의 대응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지난 수년간 SIMPAC그룹 임직원 여러분이 보여준 긍정의 마인드와 불굴의 의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의 창과 방패는 긍정의 마인드와 끝까지 해내는 불굴의 의지입니다. 새해에도 푸른 말을 타고 글로벌 시장을 누비는 SIMPAC그룹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SIMPAC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년 갑오년 새해 아침
SIMPAC그룹 회장 최진식

SIMPAC 신년사



미래 성장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과제로는

첫째,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인식해야 합니다.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고객의 입장을 공감하고 소통한다면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혁신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과 관행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시장과 고객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후발주자의 위치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제품으로 고객에게 감동과 만족을 주어야 합니다. 이에 품질경쟁력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철저하게 마무리하는 장인정신으로 무장한 SIMPAC인이 되어야 합니다.

2014년 변화와 혁신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입니다. 모든 SIMPAC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때만 이 미래의 불확실한 경영 상황 속 위기를 극복하고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단어에는 무한한 희망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작게는 하루의 시작, 한 주의 시작, 한 달의 시작, 그리고 한 해의 시작. 이 새해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마음 속에 품고 힘차게 출발하는 2014년이 되길 바랍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모두가 앞장서서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어 우리가 계획한 목표를 향해 나아갑시다. SIMPAC 가족 여러분,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The First, The Best SIMPAC을 만들어 나갑시다.

친애하는 SIMPAC 임직원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4년은 청마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는 푸른색에서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떠올리고 말이란 동물에서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기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청마의 기운을 받아 SIMPAC 임직원 모두가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2013년 한 해는 경기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시장환경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위치에서 맡은바 책임을 다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4년 경영화두는 미래를 위한 혁신이고,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SIMPAC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 속에서 중장기 차원의 미래성장 발판을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수립과 실천을 통하여 Global Press Maker No.1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
SIMPAC 대표이사 전지중



사랑하는 SIMPAC메탈로이, SIMPAC메탈 가족 여러분. 2014년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지난 한 해 지속되는 철강경기 침체와 전력비 등의 제작용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4년도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철강경기 회복시점을 예측할 수 없으며 국내외 철강경기 부진여파와 저가수입품의 물량공세 등을 상대로 경쟁해야 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는 기업만이 앞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SIMPAC메탈로이와 SIMPAC메탈의 생존을 위한 전략 몇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산성 향상 및 기술경쟁력 강화입니다. 잔잔한 파도에는 노련한 뱃사공이 없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포드폴리오 작성, 설비자동화, 조업기술 향상 등의 혁신적인 마인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SIMPAC메탈로이 · SIMPAC메탈 신년사

둘째, 영업이익 극대화입니다.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향상과 함께 비용을 낮추어야 합니다. 비용은 생산성향상과 극한의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서 낮춰야 하며, 매출액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고객과의 협력적 유대관계 유지 및 신규고객 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구매경쟁력 강화입니다. 제조회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비를 절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기존 원료구매방식을 벗어나 원료매입시점과 적정재고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신규 공급처 및 저가 원료 확보 등을 통해 제조회가를 낮추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조직내부역량 강화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곧 사람의 경쟁력입니다. 신규 채용 등으로 인재를 확보하고, 사내외 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을 꾀하여 상황에 따라 어느 부서에서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신성장동력발굴을 통해 SIMPAC메탈로이와 SIMPAC메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SIMPAC메탈로이, 그리고 SIMPAC메탈 임직원 여러분!
어려움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을 두려움이 아닌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혁신적인 마인드와 노력이 있다면 위기는 반드시 극복되리라 생각합니다. 2014년 한 해는 위풍당당하고 힘찬 청마(靑馬)의 기상으로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년 떠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보며
SIMPAC메탈로이 · SIMPAC메탈 대표이사 **송 효 석**

SIMPAC메탈 취임사

사랑하는 SIMPAC메탈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뤄낸 SIMPAC메탈 공장 건설과 오늘의 성장은 서련석 사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SIMPAC메탈 역사의 첫 장을 화려하게 열어주시고, 퇴임하시는 서련석 사장님께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4년은 갑오년 청마의 해’입니다. 말은 인간이 탈수 있는 동물 중에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또한 청색은 서양에서는 행운을, 동양에서는 좋은 기운을 뜻합니다. 60년 만에 찾아온 청마의 해에 SIMPAC메탈의 수장이 되어 그간의 진취적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SIMPAC메탈 임직원 여러분!
SIMPAC메탈은 2년 여의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제조회가 및 생산성 측면에서 이미 포항의 SIMPAC메탈로이를 앞서고 있으며 국내에서 원가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합금철업계는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공급 과잉의 시장환경에서 국내 업계 1위인 동부메탈은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고, 인도, 중국 등 해외 합금철 업체는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원화의 강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금년의 합금철 시장은 예측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업환경은 절대 우리의 안일함을 허락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이어받아 어깨가 무겁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의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전 임직원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창조적 발상과 과감한 도전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제 올해 첫 발을 내딛는 이 시점에서, 임직원 여러분께 제가 SIMPAC메탈을 운영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에 의한 원가경쟁력 확보입니다. 제조업체의 경쟁력에 있어 품질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가격경쟁력입니다. 공급과잉의 시장 환경 속에서는 더욱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중국의 한 합금철 업체를 방문하고 매우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습게 보고 있던 중국 합금철 업체들이 중국 내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으로 세계 최고의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SIMPAC메탈의 경쟁상대는 더 이상 SIMPAC메탈로이나 국내업체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업체들을 벤치마킹하고, 그들을 따라잡고 앞서기 위해 배

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한 원가절감 노력으로는 세계의 벽을 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설비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원가 절감 노력을 당부합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크게는 원, 부자재부터 작게는 소모품에 이르기까지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원가 절감 노력을 지속할 때 우리의 경쟁력은 배가될 것입니다.

둘째, 개선을 일상화하는 역동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갑시다. 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변해야하고,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한 것 보다 개선된 방법으로 내일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회사 내의 모든 문제를 드러내어 공론화하고 이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는 곳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는 전 직원이 참여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드러내고 제대로 해결하는 선순환의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조직의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일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의 업무에서부터 낭비 요인을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14년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회사조직은 확실적인 기준이 아닌 환경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SIMPAC메탈 임직원 여러분!
올해도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세로 매진했을 때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목표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위기극복을 위한 도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라는 무게와 영광스런 자리에 오른 저도 여러분의 큰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SIMPAC메탈로 발전시킨 서련석 사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의 취임사를 마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2일
SIMPAC메탈 대표이사 **송 효 석**



2014 갑오년, 말띠 SIMPAC인에 물었습니다

희망 가득,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이야기!

새 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푸른 말의 힘찬 기상을 받아 모두들 힘차게 시작하셨나요? 목표가 정해지면 거침없이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말들처럼 올 한 해 각자 뜻하는 바 결실을 맺기 위해 정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갑오년, 말띠해를 맞은 말띠 SIMPAC인들입니다. 특별한 한 해를 맞은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들의 희망찬 가득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당신을 위한 5가지 질문!

- 1 말띠 성격은 일반적으로 “밝고 개방적이며 떠들썩한 것을 좋아한다. 어떤 생각이 결정되면 목표가 관철될 때까지 한 눈 파는 일 없이 계속 나아가므로 성공률이 높은 편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의 성격은 이것과 어느 정도 비슷한가요? 비슷하다면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주세요.
- 2 나의 태몽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성격이나 현재 모습과 어울리는 내용인가요?
- 3 지난 한 해 가장 인상 깊었거나, 행복했던 사건이 있다면요?
- 4 2014년을 맞는 나만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5 말은 무리를 지어 다니며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말의 습성과 같이 친구나 가족,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요?
- 6 동료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메시지를 본인의 이름으로 만들어주세요.

SIMPAC
경영지원팀

이정우



①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초면에는 조용하지만 친해지면 심하게 밝아집니다.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기면 끝장을 보는 편입니다. 한 번은 제 손으로 직접 미니드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를 많이 타는 제가 뜨거운 노트북과 함께 미니드럼을 설계하고, 통조림이나 강통과자를 꾸역꾸역 먹어 치우며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완성된 미니드럼은 제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희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에 한 번 꽃히면 반드시 해내는 성격입니다.

② 구렁이입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구렁이 태몽은 예술성이나 문학성이 뛰어난 딸을 가지는 태몽이라고 하셨습니다. 책을 잘 읽지 않고 글씨나 말씨도 없지만,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 다루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면 예술성은 조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③ 긴 취업준비 끝에 ‘SIMPAC’ 으로부터 합격 소식을 전해 들었던 날이 가장 인상 깊고 행복한 날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격 전화를 받기 전에 긴장감에 떨며 전화기만 붙들고 있던 그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입사 후에는 좋은 동기와 선배들을 만나 회사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한 뒤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네요.

④ 퇴근 후 한 시간씩 악기를 연습해보려 합니다. 6개월은 기타, 6개월은 드럼으로 한 시간씩만 독학해서 올해 안에 기초를 마스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장님께서 신입사원에게 프레스모형 제작에 관한 프로젝트를 제안하셨습니다. 사장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입니다. 는 너무 형식적인 답변인 듯하고 ^^ 저만의 노하우는 술입니다. 저는 술은 못하지만 술자리는 좋아합니다. 초면에는 친해질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 적당히 마신다면 평소보다 up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에는 못했던 고민이나 불만을 털어 놓음으로써 더 돈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⑥ 이: 천심사년
정: 진할 수 있도록
우: 리 모두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SIMPAC
전기제어 PART

반복적인 직장

- 1 제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떠들썩한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밝은 분위기를 좋아해서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개방적이고 밝은 건 맞지만 한 눈 파는 일은 종종 있네요. ^^
- 2 특별한 태몽이 없었다고 하네요.
- 3 2014년 1월 1일 부로 조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생각도 많아지고 해야 할 일도 더욱 많아지겠지만,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시간을 갖지 못한 아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늘 함께 해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4 2014년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저를 똑 닮은 아기를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장님과 팀원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뤄 좋은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 5 항상 웃는 것입니다. 워낙 웃음이 많아 가끔은 바보같다는 소리도 들어 왔지만 덕분에인지 항상 좋은 친구와 동료,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6 박: 수칠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철: 인의 강인함과 끈기를 가진
진: 정한 SIMPAC인이 됩시다.



SIMPAC메탈로이
1공장 전기로

김상운

- 1 목표가 정해지면 거기에 상당히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내가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목표가 나를 이끍니다. 처음부터 내 능력에 맞는 일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 2 태몽은 뱀꿈입니다. 아주 좋은 꿈으로 뱀이 뛰어난 지혜를 상징한다고 하네요. 특히 용꿈과 함께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현재 제 모습과는 거리가 있지만 10년 뒤에는 이무기가 아닌 용으로 승천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 3 아~ 기억에 남는 일이 없네요..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 4 금연에 성공하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 5 먼저 다가가 손 내밀면 됩니다. 기다리기 보다는 먼저 한 걸음 다가가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SIMPAC메탈로이
1공장 전기로

김하영

- 6 김: 김 빠진 맥주처럼 왠지 하나 빠진 이 느낌과
상: 상처 입은 마음을 툭툭 털어 버릴 수 있도록
운: 운동하여 몸도 마음도 건강한 SIMPAC인이 되어봅시다.



- 1 제 성격과 조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잘 웃고 쾌활하게 지내려 노력하는 편입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 6개월을 따라 다녔다면, 한 눈 팔지 않고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는 성격인 것 같겠지요?
- 2 어머니께서 아주 큰 밤 하나를 주우셨다고 합니다. 양손으로 겨우 들고 계셨다고 하네요. 꿈에서 깨어 할머니께 여쭙보니 너한테 잘하는 효자가 태어나겠다고 하셨다 합니다. 지금은 부모님께서 멀리 외국에 계셔서 생각만큼 쉽지 않지만 이메일과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 드리며 나를 효도하려고 합니다.
- 3 아무래도 둘째 아이의 출산이겠지요. 생각지도 못한 아들이라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 지난해 11월에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출산이지만 첫째 아이와는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 4 가정에 좀 더 충실한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되고자 합니다. 두 아이의 육아를 아내 혼자 하느라 많이 힘들어 해서, 집에 돌아가면 피곤하긴 하지만 아들과 좀더 놀아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려 합니다. 일터에서는 새로 맡은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숙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처음이라 서툴지만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 5 특별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내 이야기만 하기 보다는 상대방 말에 귀 기울이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한다면 다 잘 될 거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 6 김: 하영입니다. SIMPAC메탈로이 1공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 루가 마지막 날인 듯한 각오로 항상 후회 없이 웃으며 즐겁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영: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마음만은 시뻘건
썬물처럼 뜨거운 우리 SIMPAC인 화이팅!!!



SIMPAC메탈로이
1공장 전기로

여영수

- 1 밝고 떠들썩한 것을 좋아하고 하나의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만 쳐다보는 성격이라 다른 것을 두루두루 못 보는 점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 2 태몽은 돼지꿈인데, 꽤 많이 먹는 편이라 현재 체중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3 평소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며 즐길 수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 4 평소 생활이나 직장에서, 하루에 한 가지씩 선행을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5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며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6 여: 러분과 함께
영: 원한 젊음을 불태우며
수: 수하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SIMPAC메탈로이
2공장 정련반

강홍우

- 1 저도 말띠의 성격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비롯한 주변에서 밝고 활동적인 말을 종종 들어왔고, 여럿이 어울려 함께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 2 어머니께 여쭙보니 그냥 뺨이 나왔다고만 하시네요. 내용이 뚜렷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렵풋한 이미지는 알콩달콩 살고 있는 지금의 제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셨습니다.
- 3 쌍둥이인 제 아들의 유치원 체육대회가 많이 생각납니다. 부모로서 그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설레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는데요, 그날 하루 아들과 함께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정신 없이 체육대회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고된 하루였지만 두 아들과 함께 하기에 더 없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 4 올해는 제 두 아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가지리라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가족에게 늘 든든한 아빠로 남기 위해 회사에서도 안전사고 없이 무탈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네요.
- 5 대화를 할 때, 제 할 말만 하지 않고 상대의 얘기를 먼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오갈 때 진정 교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 6 강: 인한 SIMPAC메탈로이를 만들자!
홍: 하는 SIMPAC메탈로이를 만들자!
우: 리 같이 협심하여 최고의 SIMPAC메탈로이를 만들어 보자!



SIMPAC메탈로이
원료구매팀

박희진

- 1 말과 비슷하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걸 좋아합니다. 밝고 개방적이며 떠들썩하지만 우유부단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지라, 목표가 관철될 때까지 한 눈 파는 일 없이 계속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 2 어머니가 꾸신 제 태몽은 돼지 한 마리가 품으로 뛰어드는 꿈이고, 외할머니가 꾸신 꿈은 삼신 할아버지로부터 큰 잉어를 받아 당신 필요 없다며 어머니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명예, 재물에 관련된 꿈이라고 하지만 요즘에 그냥 살이 찌고 있는 것 같아서. ^^ 하지만 태몽에 걸 맞는 모습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3 작년 11월 28일에 제가 좋아하는 스코틀랜드 출신 밴드 Franz Ferdinand의 내한공연을 봤는데, 공연 뒤에 핸드폰 케이스에 직접 싸인을 받고, 사진도 함께 찍으며 가장 인상 깊은 날을 보낸 것 같아요. SIMPAC인들에게 이 밴드의 노래 중 하나인 'Take Me Out'을 추천합니다.
- 4 입사한지 1년 반 정도 되어 가는데 풋풋한 신입사원의 이미지보다는 노련미 넘치는 사원이 되고 싶어요. 개인적인 목표로는 다이어트 성공, 카메라 구입, 해외 여행가기, 저축하기 등이 있네요.
- 5 노하우라기 보다는 그냥 상대방이 하는 말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들어주는 편이에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어야 상대방도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형식적인 대화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꾸준히 돈독하게 지낼 수 있겠죠.
- 6 박: 희진 사원이 여러분들에게 화이팅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희: 망찬 2104년 보내시고 바라는 일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진: 진짜 식사한 멘트네요. ^^



동료들과 함께

2014
HAPPY new year



허허벌판에서 만들어낸 SIMPAC메탈, 그 치열한 도전의 기록

SIMPAC메탈 당진공장 창립 멤버 7인

새해에도 변함없이 SIMPAC메탈 당진공장은 당당한 모습으로 방문객을 반긴다. 몇 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던 이곳에 공장이 세워지고 자랑스러운 'SIMPAC메탈'로 우뚝 서기까지는 치열한 도전과 열정의 과정이 있었다. 지난 1월 23일, 공장 건설의 주역인 창립 멤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생산부문장 정원수 이사를 비롯해 설비안전팀 장진석 부장, 강동희 과장, 김형준 대리, 생산팀 박승배 부장, 전기로A 남호문 반장, 설비반 장성일 주임, 총 7명이 함께 했다.





SIMPAC메탈 당진공장이 세워진 지 어느새 3년이 지났다. 2011년 12월, 공장 완공 후 '전기로 1호 출탕식'을 거행하면서 역사적인 SIMPAC메탈의 당진 시대가 열린 것이다. SIMPAC 메탈 로이에 이어 고부가가치 합금철 생산기지인 SIMPAC메탈이 완공되면서 SIMPAC그룹은 원료조달부터 제품생산까지 가능한 '종합 합금철 메이커'로서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에어돔 건립과정



사무동 건립과정



공장 건립과정



Q SIMPAC메탈의 창립멤버로 참여하게 된 과정이 어떠했는지 소개 바랍니다.

장진석 부장 : SIMPAC메탈은 '충남 당진에 합금철 공장을 설립 하겠다'는 회장님의 의지에 따라 2009년 'TF팀'이 꾸러지면서 공장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포항의 SIMPAC 메탈로이에서 건축, 기계, 인허가 관리 등 설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당진공장의 설비 부분을 맡아 건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당진공장 건설 추진본부'가 서울 사무소에 꾸러지면서 정완수 이사, 박승배 부장 등과 함께 자료수집부터 설계, 업체 선정과 토목공사까지 1년간 준비하였습니다. 서울에 근무하면서 한 달에 6번 정도는 당진에 내려가 현장을 점검했고, 2011년 2월 토목공사가 끝나고 건축공사를 시작할 때 즈음에는 아예 당진에 내려가 근무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풍경을 묘사하자면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토목, 건축, 기계 등 하나 하나 만들어 간 것이지요.

박승배 부장 : 당진공장 창립 멤버들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입니다. 정완수 이사님은 전기로와 정련로, 장진석 부장님은 전기 전문, 김형준 대리는 기계 전문, 강동희 과장은 건축 전문, 저는 생산, 설비 쪽을 담당하였으며 남호문 반장은 생산, 설비, 공정 쪽으로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장성일 주임도 장진석 부장과 함께 전기 쪽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필요한 분야에 따라 뭉친 것이죠.

정완수 이사 : 모두 함께 업체 선정부터 업체 관리, 공사 기일 관리 등 작은 것 하나라도 속속들이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관리, 감독하였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시정해 나갔고 설계 변경만 수십 번을 하는 등 모든 작업에 만전을 다했지요.



생산부장 정원수 이사
“전기로, 정련로 담당입니다”



설비안전팀 장진석 부장
“전기 전문이죠”



설비안전팀 강동희 과장
“건축을 맡았습니다”



설비안전팀 김형준 대리
“기계 담당입니다”



생산팀 박승배 부장
“생산, 설비 담당입니다”

Q 건립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정원수 이사 : 건물을 건축할 때 철골이 안 들어가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건축 과정에서 설비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인데 결국은 설비 인력들이 나서 다행히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1년 여름에는 장마가 60일간 지속되는 바람에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할 것을 우려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밤샘 작업을 하기도 했지요. 열악한 환경과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일심 단결해 심혈을 기울였던 그때가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김형준 대리 : 천재지변 등의 자연 재해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공사 기간은 반드시 맞춰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들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죠. 그렇지 않으면 생산과 납품을 정해진 시기에 못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라도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Q 건립 당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요?

정원수 이사 : 건물을 올리기 전부터 지하수 개발이 중요했습니다. 지하수가 안 나오면 공장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SIMPAC메탈 공장이 있는 이곳은 지대가 깊은 골짜기라 공업용수(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초기에 여러 시공업체들이 이걸 해결하려다 포기했는데, 우리가 선정한 업체만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 군데 실험을 해서 결국 지하수를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업체를 잘 선정하고 지하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장진석 부장 : 무엇보다 시공업체와 소통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무조건 해달라는 식이 아니라, 과정과 목적을 이해시키며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식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각자 분담한 업무를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하며 관리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을 맞추느라 우리뿐 아니라 업체들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 공정 관리에 만전을 다했습니다.



전기로A 남호문 반장
“생산, 설비, 공정 전문입니다”



설비반 장성일 주임
“전기를 맡았습니다”



Q 공장건립 후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장진석 부장 : 건축부터 설비, 부대설비가 다 갖춰지고 완공된 공장을 보니 어디 하나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네요. 하나를 꼽아 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처음 전기로에 화입하고 통전하여 출탕을 했을 때, 시뻘건 쇳물을 보면서 느낀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11년 11월 15일 전기로 1호에 첫 전기를 투입했고 2호기는 22일에 투입했습니다. 첫 쇳물이 나온 게 2011년 12월 2일, 첫 출탕식을 할 때인데 그때의 벅찬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전기로에 가장 애착이 가네요.

박승배 부장 : 저 역시 공장 설비가 갖춰지고 화입과 출탕할 때가 무척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중탄소페로망간을 처음으로 생산해냈을 때 뿌듯하고 기뻐했습니다.

남호문 반장 : 공장을 지을 때부터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사고 한 번 없었던 것이 현장 담당자로서 큰 보람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공사할 때 많게는 500명의 인원이 현장에서 일했는데 감독자들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 덕분에 지금까지도 탈 없이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Q SIMPAC메탈의 2014년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새해의 각오와 소망을 들려주세요.

강동희 과장 : 한 해의 합금철 업체 직원이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 사육과 공장을 보고 “합금철 회사 중에서 이렇게 멋진 건물을 가진 곳은 처음 본다.”라고 하더군요. 이제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실까지 갖추어서 원가, 생산 등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합금철 회사로 뻗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장성일 주임 : 당진공장이 설립된 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설비나 시설 등 모든 면에서 타 업체들을 앞서 간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이름을 나란히 하는 SIMPAC 메탈이 되도록 더욱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원수 이사 : 합금철 사업은 외부 여건과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철강 경기가 안 좋으니 합금철 시장도 상황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현재 당진공장의 가동률은 70%이나 2014년부터 세계적으로 경기가 풀리는 추세이니 희망을 가집니다. 새해에는 원가 절감에 더욱 신경 쓰고 공정을 잘 관리해서 차근차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것입니다.

장진석 부장 : 설비 고장 없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ロス 및 설비 점검에 만전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는 원가 절감과 설비 안전에 더욱 힘을 쏟고 SIMPAC메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갑오년 말띠해인만큼, 더 활기차고 도전적인 기운이 느껴진다. 지난 1월 14일 오후에 찾은 SIMPAC 부평 사옥에도 힘찬 분위기가 감돈다. 이날 5층 회의실에서 SIMPAC 해외영업팀 김우경 팀장을 비롯해 7명의 팀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자! 올해는 말처럼 더 뛰어 오르겠습니다

SIMPAC 해외영업팀 인터뷰

유정임 사원

송시영 대리

김광섭 사원

최길용 대리

손영준 사원

김우경 팀장

지승운 대리



한 겨울의 매서운 바람도 한 번에 물리칠 것 같은 느낌. 새해에도 'SIMPAC인'들의 도전과 기상은 변함이 없다. 회의실에서 만난 해외영업팀은 새해를 맞아 더욱 심기일전하는 모습이였다. 이날 인터뷰에는 해외영업팀 김우경 팀장을 비롯해 송시영, 지승운, 최길용 대리, 유정임, 손영준, 김광섭 사원 등 총 7명이 자리했다. 여러 명이 둘러앉은 덕분인지, 분위기는 사뭇 진지하면서도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현재 SIMPAC 내에서
해외영업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우경 팀장 ◆ 해외영업팀의 주요 업무는 크게 수주, 판매, 수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주활동은 기존 고객사의 신규 프로젝트 및 투자계획을 진행하며 신규 고객 및 판매 Agent 개발, A/S Network 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는 고객의 오더 베이스(Order Base)로 제작되기 때문에 수주 과정에서 고객사

의 특이 사양 요청에 대해 연구소와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매활동으로는 고객사의 납기 요청에 대응해 생산일정을 협의하고 진행 현황을 고객사에 리포팅하는 것, 제작완료 후의 입회검사, Delivery를 위한 선박 부킹, Forward 선정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수금활동이라 하면 계약 후 수금, 선적 후 중도금 수금, 설치 시운전 완료 후 잔금수금 등을 말합니다. 이 밖에도 프레스 현지 설치 시운전 및 A/S 지원이나 프레스와 연동되는 자동화 발주기업 선정, SIMPAC이라는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물 제작, 전시회 기획 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은 기본이고 마케팅, A/S지원, 생산지원, 기획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업무들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진행했던
사업 중 주력했던 부분은
무엇인지요?**

김우경 팀장 ◆ 지난해는 기존에 수주했던 프로젝트가 많아 이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장기 출장을 통해 고객과 대면하는 영업을 강화하고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등 기존 고객사를 밀착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미국, 유럽 등 신규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미개척 시장의 신규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 '코트라(KOTR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지사화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MINI INTERVIEW

2014년 나만의 계획, 소망은? (사진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우경 팀장 : 해마다 베트남 붕따우 섬에서 쉬다 오는데 올해는 시간을 더 내서 베트남을 일주하고 싶습니다. 리조트 테라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그동안의 피로가 싹 풀리고 에너지가 가득 충전해 가는 기분입니다.

송시영 대리 :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식스팩을 만들고 싶습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좋아하는 등산으로 건강도 챙기고 몸을 탄탄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김광섭 사원 : 저는 얼마 전 영화에서 본 런던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여행은 혼자 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올해 배낭 메고 런던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유정임 사원 : 부모님을 모시고 타이완으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TV에 나왔던 타이완이 무척 인상 깊게 남아서 올해는 호도여행 겸 온 가족이 함께 타이완에 다녀오려 합니다.

손영준 사원 : 올해는 기필코 자전거를 타고 부산까지 가보려 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부산까지 이어져 있으니 끝까지 내달리려고 합니다. 목표를 정해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기르고 싶습니다.

최길용 대리 : 저는 올해 중국 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내가 무척 가고 싶어 하는 '몰디브'로 같이 여행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지승운 대리 : 저는 신혼 3개월째인데 2014년은 결혼 후 맞는 첫 해인만큼 아내에게 더 잘 해주고 화목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간 업무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손영준 사원 ◆ 해외영업팀은 업무 특성상 구성원 개개인이 종합상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계 사양부터 수출, 무역, 생산, FTA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해외 기업과 우리 회사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도 필수입니다. 그만큼 알아야 할 것이 많고 지식을 쌓고 익히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2년차인데 어떻게 업무능력을 더 키울 수 있을 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시영 대리 ◆ 우리는 회사와 고객의 중간 입장에서 조율을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적절하게 조율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것이 회사 방침과 다를 때면 서로의 입장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입니다.

김우경 팀장 ◆ 영업이란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받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회사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죠. 하지만 갈수록 시장 경쟁이 치열해져 영업환경이 어려워지고, 당장 실적으로 나타나는 일도 아니기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은 상당한 사명감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업무분야입니다. 우리는 영업을 통해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것을 SIMPAC인으로 몸소 보여주고자 합니다.

일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적은 언제인가요?

유정임 사원 ◆ 가장 큰 보람은 아무래도 수주에 성공했을 때가 아닐까요. 몇 달 동안 공을 들이고 마침내 수주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 못하죠. 특히 브라질의 한 고객사 사장님이 우리 회사에 방문해서 계약서에 사인할 때, 개인적으로 정말 기뻐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김광섭 사원 ◆ 고객사와 회사 사이에서 일을 잘 중재했을 때, 또 고객사에서 부탁한 일을 성심성의껏 도와서 잘 해결했을 때,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되면 보람이 크더군요.

본인만의 업무 노하우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최길용 대리 ◆ 저는 중국에서 7년 정도 일했는데 현지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SIMPAC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누구보다 중국 시장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기에 이를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승운 대리 ◆ 저는 해외영업팀에 발령된 지 이제 3개월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연구 개발 부서에서 일했기에 기계에 대해서 만큼은 많은 지식을 축적했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스에 대한 지식과 연구 경험을 활용하여 영업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좋은 성과를 올리고 싶습니다.

올해 해외영업팀의 목표는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김우경 팀장 ◆ 2014년은 '진정한 글로벌 SIMPAC'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올해에만 해외 전시를 3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140여 개 나라를 개척하려 합니다. 또한 가격 경쟁이 치열한 미주 지역과 중국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하고, 유럽 등 취약한 지역을 꾸준히 개발하고자 합니다. 올해

도 코트라와의 지사화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프레스'는 일반 소비자들과 달리 고객이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은 자본재 산업입니다. 자동차, 가전산업 분야로 고객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문에 SIMPAC 해외영업팀은 올해도 세계 시장에서 신규 고객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갑오년 말띠해인 만큼 말처럼 힘차게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다.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생활 속의 작은 도전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법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사실이 있다면 미래가 똑같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확실한 미래를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릅니다. 누군가는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워 안주하고, 누군가는 불확실한 미래에 과감히 도전합니다. 안주하는 사람은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에 불평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도전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변화합니다. 실패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세상과 맞섭니다. 끝내 자신의 변화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전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세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당당한 자세가 매력적이겠죠. 두려움과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변화를 모색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글_자유기고가 배나영



IMPOSSIBLE

당신의 꿈에 도전하세요

평생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올해에는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당신의 꿈과 소망에 도전하는 한 해를 시작해 보세요. 목표는 기한을 정해놓고 이루고자 하는 꿈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꾸는 꿈과는 다르지요. 자, 그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전을 시작해 볼까요? 소소한 도전에 성공하면 무척 행복해집니다. 알람시계가 울리면 미적거리지 않고 벌떡 일어나기, 4층 미만은 걸어다니기,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작지만 소중한 일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더 큰 일에 도전할 용기를 갖게 되지요. 그러니 아주 작은 도전이라도 좋아요. 작게 시작해서 끝까지 성취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 도전과제 BIG 3

직장에 다니면서 무엇인가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나 자신과의 약속은 영영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목표에 하나씩 도전하고, 성취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① 직장인 도전과제 No.1 : 자기계발

새해가 시작될 때 직장인들의 목표 1순위는 '자기계발'이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는 몇 %나 이루셨나요? 아무리 거창

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도전의 묘미는 무엇보다도 발전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닐까요?

작게 시작하라 ▶ 거창한 도전만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계발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누구나 똑같이 토익 900점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의 관심사를 조금 더 넓히는 일, 평소에 궁금하던 것들을 배우는 일, 취미생활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일, 모두가 자기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나만의 방법을 찾아라 ▶ 혼자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학원을 다니는 것이 편한 사람이 있지요. 요리에 도전하든, 기타를 치든, 인문학 책읽기에 도전하든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근처의 평생교육원이나 학원, 공개 자기계발 강의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지요. 자기계발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세요. '올해는 책을 많이 읽자'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1주일에 2권씩 읽기로 결심하고,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 리스트업을 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② 직장인 도전과제 No.2 : 건강관리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지요. 평소에 건강한 사람이라면 건강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미루기 쉬운 것이 바로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은 있을 때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해 도전해 볼까요?



자신만의 이유를 찾아라 ▶ 새해가 시작되면 보통 금연을 하겠다, 술을 줄이겠다,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잊어버리고 마는 이유는 목표를 달성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 옆에 꼭 자신만의 이유를 적어두세요. 올해 안에 5kg을 빼겠다는 목표 옆에는 '날씬해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싶다' 이렇게 말이지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짜라 ▶ 목표에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따라야 합니다. 올해는 5kg을 빼겠다는 다이어트 목표를 세웠다면 월수금 아침마다 줄넘기를 10분 한다던가, 일주일에 세 번 헬스를 하겠다, 주말에는 등산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는 담배를 끊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뱃값을 저금하는 저금통을 책상 위에 비치한다던가, 3개월 동안은 술자리에 최소한으로 참석하고, 담배를 피우면 자체 벌금을 내겠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③ 직장인 도전과제 No.3 : 재테크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 살면서 돈에 대해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특히 특히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월급을 관리하는 일이 직장인들에게는 무척 중요하지요.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꿈의 실현가능성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누구나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재테크,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가계부는 필수다 ▶ 재테크라고 하면 펀드를 어떻게 굴려야 하나, 어디 있는 부동산을 구입해야 하나, 이렇게 거창한 것만 생각하시는 분

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가계부를 쓰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미혼이라면 당연히 직접 작성해야 하고, 배우자가 있다면 함께 쓰는 편이 좋겠습니다. 1년만 꾸준히 써보세요. 자신의 수입규모와 어느 항목의 지출을 줄여야 할지가 한 눈에 파악이 될 겁니다.

저축부터 시작하라 ▶ 요즘은 스마트폰만 잘 이용해도 적금을 들 수 있어요. 6개월이든, 1년이든 목표를 세우고 적금을 들어보세요. 내년이면 어머님 환갑인데 용돈을 드려보자, 내년이면 차를 바꿀 때가 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적금을 드세요. 이자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마 적금을 찾으면서 느낄 뿌듯함과는 비교도 안될 겁니다.



도전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힘들면 그만두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나만의 도전인데,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하루쯤 게으름 부리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도전은 자기 자신과의 장기전입니다. 오늘 힘들어서 포기했다라도 내일 다시 도전하세요. 꾸준히 시간을 들인 만큼 자신만의 경쟁력이 쌓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회식을 하느라 헬스를 못했다고, 영어 학원을 못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매일 다시 시작하세요.



POSSIBLE

BOOK FOR YOU

도전 정신을 일깨우는 책 Big 3



세스고딘의 시작하는 습관 by 세스 고딘, 21세기북스

세스고딘이 말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라고, 자주, 계속, 끊임없이 시작하라고 말이지요. 누군가가 별로 대단하지 않은 아이디어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저런 건 나도 하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당신과 그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과 '행동'의 차이일 것입니다. 아는 것과 이루는 것은 다릅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시작하는 사람만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겠지만, 성공 역시 없습니다. 오죽하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이디어와 열정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 이 책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매일 진화한다 by 권율, 중앙북스

권율의 이력은 화려합니다. 미국의 유명 TV프로그램 서바이버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 맥킨지, 구글을 거쳐 CNN과 PBS의 앵커로 활동 중입니다. 위안부 결의안의 미국 의회 통과, 골수 기증 운동, 아시아 빈곤 퇴치 등 사회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미국의 차세대 오피니언 리더로 인정받는 그를 보면 같은 한국인으로서 뿌듯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경험해야 했던 인종차별과 갈등 때문에 그는 8살 무렵부터 아무도 모르게 공황장애와 강박증, 대인공포증과 폐쇄공포증을 겪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면서 자신이 두려워하던 것들과 정면승부를 하기로 결심하고 두려움과 싸워나가는 모습에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꿈을 요리하라 by 장명순, 미호

이 책은 한 청년의 도전과 열정의 기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요리에 폭 빠졌던 장명순 셰프는 '좋은 요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배낭 하나 둘러메고 세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음식 값을 마련하기 위해 극한의 직업을 경험하고,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 텐트 생활을 하면서 답을 찾아다녔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요리사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셰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는 이 대답이 '열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책이 어떤 자기계발서보다도 가치 있는 이유는 한 사람이 온몸을 던져 도전한 흔적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FOR ALL SIMPAC인

회사 구석구석을 살피는 경영지원팀 · 인사총무팀 사람들의 티 안 나는 이야기

SIMPAC 경영지원팀 이해정 사원 · SIMPAC메탈로이 인사총무팀 선광규 대리 ·
SIMPAC메탈 경영지원팀 강승삼 사원의 만남

2013년 뜨거운 한 해를 보낸 SIMPAC인들을 후방에서 소리소문 없이 지원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경영지원팀과 인사총무팀 사람들이다. 청마의 해로 바뀐 1월 어느 날, 포항의 SIMPAC메탈로이 사옥에 SIMPAC그룹 신년 사보회의를 겸하여 5명의 담당자 중 SIMPAC 경영지원팀 이해정 사원과 SIMPAC메탈로이 인사총무팀 선광규 대리, SIMPAC메탈 경영지원팀 강승삼 사원이 모였다. 2014년 첫 달을 맞아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서 회사 살림을 꾸리는 이야기와 사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左)SIMPAC 경영지원팀 이해정 사원
中)SIMPAC메탈로이 인사총무팀 선광규 대리
右)SIMPAC메탈 경영지원팀 강승삼 사원

오후 4시, SIMPAC메탈로이 사옥에 주인공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인천에서 SIMPAC 이해정 사원이, 당진에서 SIMPAC메탈 강승삼 사원이 포항으로 먼 걸음을 하였고 SIMPAC메탈로이 선광규 사원은 환한 웃음으로 이들을 맞이했다.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끼리 만나 더욱 반가웠는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커피 자판기 옆에서부터 이들의 수다는 시작되었다. 자리를 옮겨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식여기는 커피와 달리식을 줄 모르는 훈훈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Q 먼저 독자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선광규 : SIMPAC메탈로이 인사총무팀에 있고, 입사한 지 3년 됐습니다. 꼭 집어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급여 관리부터 복리, 피복지급 등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승삼 : SIMPAC메탈 경영지원팀에 있습니다. 2011년 6월에 입사했고, 입사 후 SIMPAC메탈로이에서 2개월 동안 연수를 받았습니니다. 그래서 이곳이 매우 친숙한 느낌이 드네요.



이혜정 : SIMPAC 경영지원팀 소속입니다. 회사는 다르지만 오늘 모인 세 사람이 하는 일은 비슷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입사부터 퇴사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일과 급여 관리, 행사 지원 등 하나하나 챙겨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Q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이혜정 : 2009년 8월에 입사한 이곳이 저의 첫 직장입니다. 입사 후 아버지 연배의 직원들을 대할 때면 마냥 어려웠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직원들 고충을 듣고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먼저 다가가 친해지려는 노력을 할 정도가 되었네요. 또 이 일은 하면 할수록 급여, 노사, 연말정산 등 공부야 계속 필요한 전문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승삼 :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경영지원 업무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직접 부딪혀 보니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인사보다 총무 쪽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태, 피복, 입사와 퇴사, 이동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 좀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고요.



선광규 : 입사, 퇴사는 물론 직원의 자녀 출산부터 직계사망까지 모든 경조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들 얼굴을 보게 되는데요, 뵈게 되면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나서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챙겨드리게 됩니다. 작은 일들이지만 뜻깊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Q 여러 직원을 챙기는 일이라 힘든 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선광규 : 업무상으로 문제가 생기면 선배와 의논해 해결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정해진 답이 없어 쉽지 않아요. 공장에서 힘든 작업들을 하다 보면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 때에는 한다고 하는데도 환경에 대해 클레임이 있을 때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바로 대화로 풀면 괜찮은데 타이밍을 놓치면 감정의 골이 생길 수 있으니 그 자리에서 서로 툭툭 털어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강승삼 : 아주 사소한 부분들까지 챙겨줘야 할 때가 많은데 저희가 다 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죠. 특히 당진에는 가족을 포항에 두고 와 혼자 생활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럴 때 외로움을 달랠 만한 여가생활 프로그램이나 공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지원해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FOR ALL SIMPAC



이혜정 : 서류작성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요청으로 들어오는 일들의 대부분이 바로 바로 처리되어야 하는 일들이라 쫓기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직원 보다 남직원이 많다 보니 현장에서 소통하는데 좀 어려울 때도 있고요.

Q 힘든 일이 지나면 뿌듯한 순간도 올 것 같은데, 언제 보람을 느끼나요?



강승삼 : 가족 파티나 한마음 전진대회와 같은 행사가 성공리에 끝나고, 직원들이 제게 수고 많았다는 말을 할 때 정말 뿌듯합니다. 야외에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진행까지 힘든 점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잊게 합니다.



이혜정 :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는 회사에서 케이크를 선물해줘요, 직원이 케이크를 받고 기뻐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면 왠지 뿌듯합니다. 그리고 연간 행사가 끝난 뒤에 팀원들끼리 서로 수고했다며 회포를 풀 때면 지난 일년을 되돌아보게 되고, 참 많은 일을 했구나 스스로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선광규 : 경조사 시 먼 거리를 운전해갈 때에는 고되지만, 막상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직원을 만날 때면 당연한 제 일이고 앞으로 더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면 참 뿌듯하고요. 또 행사 진행 시에 수고가 많다며 건네는 진심 어린 말 한 마디가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Q 사보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코너가 있거나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요?



이혜정 : 저는 이번에 처음 사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독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제가 출연하거나 가까운 동료가 나오면 더 관심을 두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SIMPAC그룹의 모든 직원들이 한 번씩 사보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행기가 실리는 1박2일 코너도 관심 있게 보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광규 : 저는 '칭찬합니다' 코너가 마음에 듭니다. 서로 서로 칭찬하고 말 한 마디라도 건네면서 주변 사람들을 더 챙기고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사내에 퍼져나가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사들이 추가되어 가족들도 관심 갖고 볼 수 있는, 소소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승삼 : 저는 가족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가족촬영도 함께 하니깐 다들 추억이 된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건 어떨까요, 직원들의 아내모임이나 남편들 모임? 자기 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다른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점을 듣고 싶어요. 섭외는 힘들겠지만 재미있을 것 같네요. 대신 비밀은 사라지겠지만요. 하하하.

회사 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두의 행복을 책임지는 SIMPAC그룹의 살림꾼들답게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 씀씀이가 참 보기 좋은 인터뷰였다. 많은 직원들과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고 도움을 주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들에게, "수고가 많다"는 따뜻한 말 한 마디를 건네는 것은 어떨까. 아마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힘이 되는 말이 아닐까 싶다.





61인의 SIMPAC인이 한자리에!



2013 SIMPAC메탈 한마음 전진대회 현장

SIMPAC메탈의 한마음 전진대회가 열린 지난 2013년 11월 8일, 충남 당진시 종합운동장에는 61명 SIMPAC인의 우렁찬 함성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어느 때보다 SIMPAC인들의 함성소리가 힘차고 표정이 밝은 것은 다름 아닌 필수인원 3명을 제외한 SIMPAC메탈 전원이 한 날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 교대조로 진행되는 업무의 특성상 항상 1, 2차로 나누어 행사를 치러온 아쉬움을 이날만큼은 떨쳐내서 일가. 높고 푸른 하늘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경까지 몸도 마음도 즐거운 명랑운동회로 진행되었다. 화창한 날씨의 햇살을 받으며 시작된 오전행사는 '협동 공튀기기'를 시작으로 '낙하산 릴레이'와 '통나무 결투' 등과 같이 서로 호흡을 맞추며 몸을 풀 수 있는 경기들로 구성되었고, 오후에는 '집단축구', '림보 경기', '왕자님 모시기', '이어달리기', '풍선기둥 경기' 등, 본격적으로 함께 달리며 즐길 수 있는 게임들로 진행되었다.

행사 중간 중간 SIMPAC인들은, 미리 준비된 따뜻한 꼬치어묵과 갓 부쳐내 바삭한 파전으로 열심히 땀 흘려 출출해진 뱃속을 달래고 남은 일정도 무리 없이 소화하였다.

시간이 흘러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웃음 가득한 SIMPAC메탈의 한마음 전진대회는 마지막 순서인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 시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동료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유희악수를 끝으로 뜻깊은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SIMPAC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 기부

SIMPAC이 연말을 맞아 불우한 환경의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천만 원을 지난 12월 30일, 부평구청에 전달하였다.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와의 공동발전 일환으로 임직원이 모은 성금 1천만 원을 부평구청에 방문하여 홍미영 부평구청장에게 전달하였다. 전지중 대표이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연말 지역사회 후원

SIMPAC이 연말을 맞아 지난 12월 20일 지역사회 후원의 일환으로 인천 용현동에 위치한 해성보육원에 선물을 전달하였다. 따뜻한 사랑이 절실한 아동들을 위해 SIMPAC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비한 선물을 전하며 전지중 대표이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무식 행사 실시

SIMPAC은 지난 1월 2일 시무식 행사를 실시하였다. 전 임직원 및 사내협력업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시무식은 제언제도와 SIMPAC대상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하는 시상 시간을 가졌다. 근로자 포상에 이어진 신년사에서 최진식 회장은 2013년 한 해, 국내외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각각의 사업영역에서 성장과 내실을 다지는 노력을 부단히 해준 전 임직원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아울러 2014년에도 지속되는 불확실성, 저성장, 위기의 시대를 맞아 꾸준한 성장을 위하여 R&D 강화와 조직 효율성 향상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발전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자고 강조하였다.



민주당 지도부, ‘중견기업과의 신년간담회’ 실시

지난 1월 24일, 민주당 지도부가 중견기업과의 신년간담회를 위하여 SIMPAC에 방문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중견기업계 인사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최진식 SIMPAC그룹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쏟아내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김한길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발전으로 헌법이 요구하고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고, 곧 중견기업의 발전과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말하며 경제민주화는 중견기업의 발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촉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한길 대표는 “중견, 중소기업들의 건실한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견기업과 현장에서 더 많이 만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IMPAC메탈로이



산학협력 양해각서 체결

지난 12월 11일 SIMPAC메탈로이 송효석 대표이사와 포항대학교 정기영 총장은 양 기관의 발전과 미래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지역사회의 인재양성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양기관은 현장교육 기회제공, 특강 강사진 및 산학협력을 위한 인적교류, 기타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교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송효석 대표이사는 포항대학교와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어려운 경기를 상호협력을 통하여 극복하고 회사와 학교 모두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해병대 장병 위문 성금 전달

지난 12월 24일 SIMPAC메탈로이 송효석 대표이사 외 임직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병 1사단(사단장 황우현 소장)을 방문하여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자리를 가졌다. 연이은 북한 독재정권의 도발과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국방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경제발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나라를 지켜주는 우리 해병대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승을 기원하는 성금 전달식에서 송효석 대표이사와 황우현 사단장은 앞으로도 민과 군이 협력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보, 나아가 국가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2공장 직원화합 배구대회 개최

지난 11월 20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포항실내체육관에 모인 2공장 식구들은 하얀 배구공에 웃고, 땀 흘리며 하나가 되었다. 바쁜 일상 속 서로 마주보며 웃고 땀 흘린 것이 얼마만인지 힘을 법도 한데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다. 한바탕 치열한 경기가 끝나 나고 근처 식당에 둘러 앉은 2공장 식구들은 양손 가득 상품을 들고 맛있는 식사를 하며 즐거워했다. 이날 2공장장인 채상갑 이사는 지금처럼 모두가 웃으며 출근하고, 웃으며 퇴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자는 당부와 함께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SIMPAC메탈



시무식 및 대표이사 이·취임식

지난 1월 2일 SIMPAC메탈의 시무식과 대표이사 이·취임식 행사가 치러졌다. 희망찬 새해와 더 큰 성장을 다짐하는 최진식 회장의 인사말로 2014년 첫 공식 행사가 시작되었고, SIMPAC대상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SIMPAC대상에는 생산성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은 전기로 황해현 반장이 최우수상을, 설비안전팀 이재형 사원과 전기로 인민고 사원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시상 후에는 전임 서련석 대표이사의 이임사와 신임 송효석 대표이사의 취임사가 이어져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의 건승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윤화약수를 통해 신년인사를 나누는 임직원들은 로비로 자리를 옮겨 간단한 다과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었다.

다른그림찾기

왼쪽 사진과 다른 점이 오른쪽 사진에 네 군데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답지에 체크하여 2월 28일까지
각 사 사보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다른그림찾기 지난 호 당첨자

SIMPAC 구매팀 · 김규탁 | 재무기획팀 · 민주선 대리
SIMPAC메탈로이 1공장 전기로 · 박동혁 | 2공장 가공반 · 이정형
SIMPAC메탈 전기로 D조 · 박철기 | 경영지원팀 · 김유림



당신을 칭찬합니다



Post Card. SIMPAC 생산1팀 박정현 사원이 생산1팀 이태환 사원에게

어느 부서의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생산1팀 이태환 사원을 칭찬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팀원이 비뺄 때 도와줄 게 있는 지 먼저 물어보는 사람,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협조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인가요?

나이는 같지만 이태환 사원이 막내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친해지기 쉽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팀 워크샵 때 보드를 같이 타면서 친해져 지금은 서로 조언해주고 격려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This side is for the address.

SIMPAC 국내영업팀 김주한 대리가
고객지원팀 신승락 주임과 김진완 주임에게

어느 부서의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대구영업소 고객지원팀 신승락 주임님과 김진완 주임님을 칭찬합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대구영업소에서 영업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신속하고, 정확하지만 때로는 인건미 넘치는 업무 대응으로 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의 기본 소양을 많이 본받고 있습니다. 고마운 점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지만, 굳이 에피소드를 꼽으라면 신영 울산 공장의 DL4P-1500톤 라인 미들 기어 교체 작업 시 뻘뻘한 일정 속에도 며칠 밤을 새우며, 완벽하게 대응해주신 덕에 업체의 니즈를 200% 충족시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분만의 특별한 인연이나 공통점이 있나요?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요.

1년 동안 대구영업소에서 특별한 인연을 쌓아가고 있으며,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업무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까마득한 선, 후배 사이지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계를 통해서 영업 수주 목표 달성 및 고객 만족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유대 관계를 지속하고 싶습니다.



SIMPAC메탈로이 2공장 김영돈 사원이 2공장 함광식 반장에게

어느 부서의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우레탄 반의 함광식 반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과, 일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늘 성실하고 책임감이 많은 부분들이 본받을 만한 부분입니다. 때때로 무심결에 던지는 지나친 농담이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농담을 웃음으로 받아주는 이해심 많은 아우이고요. 그래서인지 지나갈 때면 괜스레 어깨 한 번 툭 치고 싶고, 말 한마디 더 붙이고 싶은, 고마운 사람입니다.

두 분만의 특별한 인연이나 공통점이 있나요?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요.

특별한 인연을 찾는다면 아무래도 SIMPAC메탈로이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솥밥을 먹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요즘은 아니지만 10년 전만 해도 바다낚시가 좋아 함광식 반장과 동해안의 파수꾼을 자처하며 귀한 감성돔을 잡으러 출조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비록 허탕을 치고 빈 손으로 돌아올 때가 많았지만요, 끈들만이 알 수 있는 희열과 낭만을 함께 느끼던 그 시절이 그리워합니다.



POST CARD

No. 100

😊 • 우리들의 이야기 •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지난 1월 26일, SIMPAC홀딩스
이엔지부문 생산팀 정제린 대리의
둘째아이 정현빈 군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왕자님의 탄생을 축하해주세요!



다른그림찾기 답지

답은 총 네 군데에 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 각 사
사보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세요.

〈참가자 정보〉

소속 :

성명 :



